

오피니언

다산포럼

임현진



대침체(Great Recession). 미국 경제의 회복이 조만간 어렵다. 앞으로 10년간 투자자는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GDP에서 재정적자는 10.5%, 국가채무는 9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세계 유일의 슈퍼 파워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급이 갔다. 미국 국채가 안전 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대이동과 신용 경색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은 달러의 발견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매워 왔지만 더 이상 국가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잃었다. 미국의 부채 위기는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준비 확대와 세금 감축에 기인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고민한 증세는 공화당 티퍼티 계열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싼 임금과 비용을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양적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일자리를 늘리기가 어렵다.

미국 경제의 대침체는 세계 경제를 심

하게 흔들고 있다. 세계 여러 곳에서의 증시 수요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총액보다 많은 170조원이 날아갔다. 수출입 대외의 조도가 97%를 넘는 한국으로서는 환율 상승과 수출 감소는 회복기에 있는 우리

세계는 표류하는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 올 것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표준이 바뀌어야 할 처지다. 모든 나라 자산의 기본으로서 미국 국채의 신용 감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국채를 대체할 투자 대안이 없다. 아직 채권시장은 정중동(靜中動)이다. 미국 국채의 투매가 공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축통화(key currency)를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겠지만 나라마다 보유 외환의 통화 다변화를 먼저 시도할

것이다. 미국 국채로부터 이탈이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누가 미국에 대신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행사할 것인가. 유럽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바쁘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로 번져가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채권발행과 구제 금융에 미온적이다. 오히려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돼지(PIGS) 국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북구 삼국이라 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유로와 다른 독자적인 공동화폐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쓰나미 후유증마저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4년도 안 되는 동안 네 명의 총리가 바뀌었듯이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하다. 여전히 이익집단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을 대신한 민주당은 국가 쇄신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

2010년 중국의 경제는 일본을 따라잡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제2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추세를 간다면 빠르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GDP에서 따라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GDP가 세계 2위라 하더라도 일인당 국민소득

은 세계 100위권에 머물고 있다.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하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개발 독재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 아래 '협의형 독재'를 통한 국가 자본주의적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근거로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GDP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일본, 독일은 상대가 되지 못한다.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지만 해외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다. 국가부채 14조 3000억달러 중 3분의 1만 이 해외 부채이고 나머지는 미국인들의 것이다. 해외로 나간 원천기술을 지닌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다. 달러 제국의 권위는 무너졌지만, 미국의 지도적 지위는 쉽게 깨지지 어렵다.

오늘의 세계화는 선진국 중심의 감자 이데올로기다. 그럼에도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세계가 표류할 때 중세적 암흑기로 회귀할 수 있다. UN등 국제기관은 문제 해결의 역량이 부족하다. G7은 명분이 약하고, G20은 실제가 약하다. 미국과 중국 G2는 협력보다 경쟁 관계이다.

한국의 좌표를 냉철히 살펴보고 미래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인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농약 성분' 의혹 벗은 전남산 천일염

전남산 천일염이 '농약 사용'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의 한 언론이 농약 사용 의혹을 제기한 지역의 염전 25곳 등 전국 30곳을 대상으로 성분 검사를 했지만 농약을 사용한 정황이나 흔적이 없었으며, 단 한 종의 농약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염전 주변에서 발견된 빈 농약병은 주변 농경지나 상부 지역에서 방치됐던 빈 병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잡초 제거와 개 구멍을 막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잡초는 곡우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대로 자라도록 놔두고 있으며, 개 구멍은 발로 밟거나 주변에 흙을 쌓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로 '농약 염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

도로 인해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87%를 공급하고 있는 전남산 천일염의 명예가 훼손되고, 천일염 생산자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소비자들의 불안 등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는 그에 따른 보상과 책임에 대해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언론사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자 상식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라면 책임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전남도와 생산자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염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지도 단속과 교육은 물론 농약 살포 등 위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염제조업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천일염의 잔류농약 검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친환경 천일염 관리방안 마련과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백화점·마트 주차장 안전시설 강화해야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대책과 함께 관련 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숨진 사고 2층 주차장 내 일부 벽면이 외부 충격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백모(2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장 벽면을 뚫고 지하 6층 환풍구 바닥으로 추락해 백씨가 숨졌다. 사고가 난 주차장의 벽은 경량 콘크리트 블록으로 두께가 15cm밖에 되지 않아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2월에도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추락사고는 무엇보다 이들 유통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주차장 시설 규정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지하 주차장을 평소에도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고강도 벽돌이 아닌 일반 벽돌을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

허술한 시행 규칙도 문제다.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규칙은 2층 이상 건축물 주차장의 경우 두께 20cm 이상, 높이 60c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사고가 난 곳 등은 법 개정 전에 지어졌거나 건축물 용도가 달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들 유통업체 주차장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경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관계 당국에 철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해 2월에도 순천시 풍덕동 홈플러스 3층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추락사고는 무엇보다 이들 유통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주차장 시설 규정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지하 주차장을 평소에도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고강도 벽돌이 아닌 일반 벽돌을 사용하고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5000여 원의 사재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순수 개인 기부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꼽힌다. 이어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이 필적한 한 사회 기부계를 비롯한 몇 컴퓨터의 마이클 델, 인텔의 창업주 빌 게이츠의 창업주 고든 무어 등이 첨단 IT산업을 통해 번 막대한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거액 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IT산업의 황제 빌 게이츠나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인텔의 고든 무어 등이 대표적인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09년까지 2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부했다. 2위는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 같은 기간 72억 달러를 기부했다.

지난 2006년 빌 게이츠의 가족 기부 재단을 통해 20년간 30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워렌 버핏은 2009년까지 67억 달러를 기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 기부자 가운데 다섯 명은 IT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로 분석됐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를 비롯한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인텔의 창업주 고든 무어 등이 첨단 IT산업을 통해 번 막대한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거액 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IT산업의 황제 빌 게이츠나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인텔의 고든 무어 등이 대표적인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또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기도 하다. 빌 게이츠는 지난 2009년까지 2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기부했다. 2위는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 같은 기간 72억 달러를 기부했다.

지난 2006년 빌 게이츠의 가족 기부 재단을 통해 20년간 30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한 워렌 버핏은 2009년까지 67억 달러를 기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 기부자 가운데 다섯 명은 IT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들로 분석됐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를 비롯한 델 컴퓨터의 마이클 델, 인텔의 창업주 고든 무어 등이 첨단 IT산업을 통해 번 막대한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했다.

거액 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반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IT산업의 황제 빌 게이츠나 델 컴퓨터의 마이클

NGO 칼럼



박미경

이번에도 여지없이 여름캠프 안내장은 누더기가 되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환경체험활동 참가가 가능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모든 환경프로그램에 참가해왔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여는 자연나들이, 여름이나 겨울방학에 개최하는 2박3일 캠프 형태의 여름, 겨울 자연학교, 그 밖의 현장체험 성격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참여한다.

현장학습을 섭렵해서 웬만한 내용은 시작이 어떻게 끝이 어떻게 꿰고 있을 것 같은

자연과 관계 맺기

데도 매번 프로그램 안내장을 받을 때마다, 보고 또보고 외우다시피 해 안내장 종이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곤 한다.

만물박사는 지리 가라며 자연과학에 도통해 있는 딸아이마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번 여름캠프의 제목은 '시계 밖에서 놀자'이다.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일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해가 뜨고 지는 자연의 시간에 맞춰 지내보자는 것. 자연의 시간에 생활을 맞추자 보니 해가 뜨고 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대나무집 짓기, 직접 만든 떡볶이로 강 건너기, 군불 때기.

아이들이 가장 공을 들인 대나무집은 직접 자신들의 이름으로 문제를 달고, 신발장이며 외계인과 교신할 대나무 안테나며 뜻 외 벽장식을 꾸미게 되어, 목수가 되었다가

예술가가 되었다가 천문학자가 된다. 비닐벽 대나무집은 비가 오면 처마밑이 되고, 낮 시간엔 기후온난화 체험장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의 관심 밖이었던 양파껍질은 흰색 천을 노란색으로 물들였다가 붉게도 만드는 마술 물감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해가 넘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밤하늘의 별에 눈길을 돌린다.

그것뿐만 아니다. 귀갓길 아이들 두 손엔 2박3일간의 여정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오아나 가지, 유정란 같은 먹을거리가 한아름 들려있기도 하고, 마을 근처 동맹을 만나절은 헤집고 다녔을 흔적이 물병을 반이나 채운 다슬기를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뽕이가 뒤죽박죽이 돼 외형은 그럴듯함에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슬픈 가오리연이나 흙으로 빛은 토끼나 오리가 아이들 품에 안겨있기도 한다.

체험활동 경험이 한편으론 아이들에게 하루 온종일, 혹은 2박 3일 내내 들로 산으

로 강으로 뛰어놀고 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딸아이의 경우도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느냐 물어보면 누구누구랑 귀신이야기 했던 것이 제일이었다는 등 전혀 엉뚱한 추억거리를 늘어놓기도 한다.

우리 단체가 이번 여름 캠프를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교육 목적은 '자연과 따뜻한 관계 맺기'였다. 이를 위해 옛날부터 자연으로부터 받아왔던 의·식·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저절로 사람을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특히 환경체험학습은 지식 쌓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자연과 나,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를 느끼게 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기도, 예절을 배우기도 한다. 자연을 존중하면 절로 환경운동이 된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활습관으로 정착된다면 우리가 캠프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환경교육은 확실히 성공한 것이 될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고



민경식

고구려 시대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늙어서 쇠약한 부모를 산채로 묘실(墓室)에 옮겨 두었다가 죽은 뒤에 그곳에서 장사를 치내는 풍습이다.

옛날에 한 아들이 늙어 노망한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서 버리고 난 뒤 그 지게를 가져오지 않자 그의 아들이 물었다. "왜 지게를 가져오지 않으셨나요?" 아버지는 "그냥 버리고 왔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소중한 지게가 있어야 나도 아버

현대판 고려장을 아시나요

지가 늙으면 아버지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아버지를 산에서 모시고 와 잘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7월 11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둔 독거노인의 생활을 소개했다. 그 노인은 주민센터에서 하루에 한끼씩 제공해주는 식사를 세 끼니에 걸쳐 나눠먹으며 외로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 노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자신들은 전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심지어 전화번호마저 바뀌어버렸다. 안타까웠다.

자식!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부모는 자식을 열 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통을 겪으며 세상의 빛을 보게

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내 자식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 하지만 부모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부모가 늙으면 나 몰라라 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이야기처럼 먼 훗날 자신도 고려장이 될 줄을 왜 모르는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까마귀조차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어미 까마귀가 늙어 거동이 불편하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고사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니..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부모를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안부를 걱정한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가족공동생활이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무너져가고 있다. 자식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노년을 보내던 시대도 바뀌었다. 이제는 부부만 고독하게 생활하는 시대로 변했다. 일부는 그 생활이 더 편하다고도 한다. 필자도 그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아들, 손자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가버릴 때 느끼는 허망함이란 말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이 현대판 고려장을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렇고 우리의 자식을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본다.

(광주시 동구 산수1동)

나 컸을 때와 둘 컸을 때 가지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하나 컸을 때 그만큼 높은 것이다.

안전운전은 귀중한 내 생명을 지키는 필

수 조건이다. 그리고 차량 관리는 안전운전의 지름길이다.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전조등 고장 방치한 채 운전, 교통사고 부른다

어두운 밤길,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필수적인 장치가 바로 전조등이다. 그런데 야간 운전중 두 개의 전조등 중 하나가 꺼진 채로 달리는 차들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전조등이 고장 나도 당장 운전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며 밤길을 질주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전조등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조등을 하나 컸을 때와 두 개 모두 컸을 때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 본 결과가 있다.

전조등을 두 개 모두 컸을 때는 운전자가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밝기인 5룩스(lux)빛의 범위가 75m 앞까지 길게 뻗어나간다. 그러나 전조등을 하나만 켜 경우 불빛의 범위가 확연히 줄어들어 55m에 불과해진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 거리는 60m라는 게 자동차 공학의 일반적인 실험 결과다. 즉, 전조등을 하나만 켜 시속 100km로 달리면 운전자는 55m 바깥 장애물을 볼 수 없어 자칫 큰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조등을 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미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사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